

#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s of Beauty Program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공미진\*, 유왕근\*\*, 한삼성\*\*, 강매희\*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Mi-Jin Kong(kmj052700@naver.com)\*, Wang-Keun Yoo(wkyoo@dhu.ac.kr)\*\*,  
Sam-Seong Han(sshan@dhu.ac.kr)\*\*, Mae-Hee Kang(future0927@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산후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450명을 2018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임의 표집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402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또한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2018년 6월 1일부터 29일까지 17명을 대상으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방법의 미용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할수록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용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미용 프로그램 참여 후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용 프로그램은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미용 프로그램 | 우울증 | 육아 | 스트레스 | 치료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mothers with infants to identify the relevant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beauty therapy program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fter conduct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of 450 mothers with infants under 36 months old in Busan city from May 1 to 20 May, 2018 through convenient sampling method, the final analysis of 402 women. In addition, experimental research throug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also conducted on 17 peopl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beauty therapy program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the les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lso,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fter participating in beauty therapy programs are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ose before participating in beauty program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beauty therapy program is one of the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women's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 keyword : | Beauty Program | Depression | Parenting | Stress | Therapy |

## I. 서론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동시에 행복과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권리이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 등 전 생애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시기로, 전 생애에 걸친 뇌 발달의 약 60%가 만 2세 전에 진행된다[1]. 즉 생후 6개월에서 2~3세 정도의 영아는 양육자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과 접촉추구 등의 애착행동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단계에 들어서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 양육자의 91.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만 2세 전 영유아기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성과의 애착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자들은 양육으로 인한 수면 부족, 신체적·정신적 피로, 외부활동 제약 및 양육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이에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전제되는 양육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내적요인이든, 외적요인에 의해서든 그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부모 스스로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 및 자식과의 관계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녀 양육이란 부모로서 아이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하루 종일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은 부모세대와는 또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최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예술분야이다. 예술치료는 예술 매체 특유의 감성과 심리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을 바탕으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과학적 심리치료로 발전하고 있다[3]. 이러한 예술 활동은 인간의 미적 본능과 표현 의지로 인해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의료적 치료에서 개입하지 못한 우울증의 이면기제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4]. 예술적 접근 방법들 중에서 특히 미용은 심미적 효용으로 인하여 여

성에게 언제나 높은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며, 자신을 향한 가장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예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용이 가지는 심리적 효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 행위에서 나아가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치유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 짧은 연구역사에 비해 미용이 가지는 치료적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기존 선행연구를 사회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자아존중감[7][8], 우울[9][10], 스트레스[11], 치매[12][13], 정신건강[14] 등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미용이 가지는 다양한 심리적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5].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여성에게, 미용을 적용한 정신건강증진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자기탐색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자기수용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부산 소재 어린이집 학부모 중 참여를 원한 영유아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20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자료 수집은 부산 소재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임의 표집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방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여 무응답 또는 자료 이용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 후 40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는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원시 실험연구(pre-experimental design)로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실험대상자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중 17명을 선발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29까지 주 1회 90분간 총 4회에 걸쳐 미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연구의 대상자는 첫째, 연구의 목적과 미용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경우, 둘째, 프로그램이 끝나는 기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셋째, 산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인 경우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녀 양육 관련 특성, 외모관심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이상), 학력(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종교유무(① 있음 ② 없음), 월 평균 가구소득(① 3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미만 ③ 500만원 이상), 경제활동상태(① 경제활동 ② 비경제활동), 그리고 결혼생활 만족도(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2 자녀 양육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자녀 양육 관련 특성은 자녀 수(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자녀연령(① 6개월 이하 ② 7~12개월 이하 ③ 13~24개월 이하 ④ 25~36개월), 수유방법(① 모유 ② 혼합수유 ③ 분유), 보육시설 이용여부(① 예 ② 아니오), 남편 양육 도움(① 도와주는 편 ② 보통 ③ 도와주지 않는 편), 그리고 남편 외 가족 양육

도움(① 도와주는 편 ② 보통 ③ 도와주지 않는 편)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 외모관심도

외모관심도는 임정미[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메이크업 관심 4문항, 헤어관심 4문항, 피부관심 3문항, 의복관심 4문항, 몸매관심 2문항, 그리고 전반적 외모관심 3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항목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임정미[15]의 연구에서 .8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2였다.

### 2.4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임정미[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메이크업행동 4문항, 헤어행동 4문항, 피부관리행동 4문항, 의복행동 4문항, 몸매관리행동 3문항, 그리고 성형 1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항목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임정미[15]의 연구에서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 2.5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공영희[16]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항목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공영희[16]의 연구에서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2.6 우울증

우울증은 Radloff[1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전경구와 이민규[18]가 번안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정적 내용의 17문항과 긍정적 내용의 3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항목은 ‘극히 드물었다.’ 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전경구와 이민규[18]의 연구에서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3. 미용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용 프로그램은 연구 설계부터 프로그램을 개발 후 적용하는 과정까지 각 분야별 박사 학위소지자 중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진행을 하였다. 자문방법은 전문가 선정, 질문 작성 및 송부, 회답분석 및 정리, 결과분석 후 질문, 그리고 최종 정리 등의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미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미용 프로그램

횟수	주제	내용	시간
1	화장교육	쉽게 연출이 가능한 셀프 메이크업	90분
2	헤어스타일링 및 시술	얼굴형에 어울리는 쉽고 간단한 헤어스타일링 연출 방법	90분
3	네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셀프 네일	90분
4	페이스요가 (얼굴) 및 체형관리	매일매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페이스요가와 자세교정과 체형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및 요가동작	90분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PASW 22.0(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 $\alpha$ )을 5%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녀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평균 값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ANOVA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과의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편 실험군의 미용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Willcoxon 부호 순위검정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57.73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20대’는 평균 46.05점으로 나타난 반면, ‘30대’와 ‘40대 이상’은 각각 59.40점과 54.61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 $p < 0.001$ ). 학력은 ‘대학원졸’이 평균 62.76점으로 ‘고졸’ 평균 53.98점과 ‘대졸’ 평균 57.5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 < 0.001$ ), 종교가 있는 군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59.70점으로 종교가 없는 군의 평균 55.7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 < 0.001$ ).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300~500만원 미만’인 군은 평균 60.39점으로 나타난 반면, ‘3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인 군은 각각 53.93점과 55.59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p < 0.001$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군은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59.64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군의 54.59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 $p < 0.001$ ).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만족’인 군은 평균 49.62점, ‘보통’ 60.30점, 그리고 ‘불만족’인 군은 64.41점으로, 결혼생활 만족이 낮은 군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01$ ).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구분	대상자 수	양육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t or F(P)	우울증 (평균±표준편차)	t or F(P)
전체	402	57.73±10.75		28.36±13.59	
연령					
20대	22	46.05±9.86a	22.088 (<0.001)	25.00±15.04ab	9.083 (<0.001)
30대	301	59.40±9.89b		29.98±13.48a	
40대 이상	79	54.61±11.49b		23.10±12.20b	
학력					
고졸	52	53.98±11.67a	9.039 (<0.001)	25.75±12.87	1.734 (0.178)
대졸	300	57.54±10.26a		28.41±13.49	
대학원졸	50	62.76±10.93b		30.74±14.70	
종교유무					
있음	200	59.70±11.28	3.715 (<0.001)	30.61±13.78	3.339 (0.001)
없음	202	55.78±9.83		26.13±13.06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9	53.93±10.40a	14.987 (<0.001)	26.22±13.98a	9.993 (<0.001)
300 ~ 500만원 미만	210	60.39±10.41b		31.14±12.91b	
500만원 이상	103	55.59±10.34a		24.53±13.47a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152	54.59±11.20	-4.681 (<0.001)	23.77±13.07	-5.464 (<0.001)
비경제활동	250	59.64±10.01		31.15±13.16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	108	49.62±11.47a	56.020 (<0.001)	16.94±13.28a	78.862 (<0.001)
보통	265	60.30±8.70b		31.74±10.73b	
불만족	29	64.41±8.59b		39.93±11.71c	

<sup>a,b,c</sup> The same letter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전체 연구대상자의 우울증은 평균 28.3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30대'는 평균 29.98점으로, '40대 이상'의 평균 23.10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p<0.001$ ). 종교가 있는 군의 우울증은 평균 30.61점으로 종교가 없는 군의 평균 26.1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1$ ).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300~500만원 미만'인 군은 평균 34.14점으로 나타난 반면, '3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인 군은 각각 26.22점과 24.53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p<0.001$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군은 우울증이 평균 31.15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군의 23.7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1$ ).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만족'인 군은 평균 16.94점, '보통' 31.74점, 그리고 '불만족'인 군은 39.93점으로, 결혼생활 만족이 낮은 군일수록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1$ ).

## 2. 자녀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자녀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자녀의 수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2명'인 군은 평균 59.90점으로, '3명 이상'인 군의 55.21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자녀연령이 '25~36개월'인 군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52.29점으로, '6개월 이하' 60.54점, '7~12개월 이하' 59.83점, 그리고 '13~24개월 이하' 61.33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차이를 보였다( $p<0.001$ ). 수유방법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혼합수유'인 군은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54.16점으로, '모유' 60.64점과 '분유' 57.49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남편 양육 도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도와주는 편'인 군은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50.70점, '보통' 59.48점,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편'인 군은 62.43점으로, 남편으로부터 양육 도움이 낮은 군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표 3. 자녀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구분	대상자 수	양육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t or F(P)	우울증 (평균±표준편차)	t or F(P)
전체	402	57.73±10.75		28.36±13.59	
자녀 수(명)					
1	182	55.86±9.84ab	7.690 (0.001)	27.52±13.64a	8.777 (0.001)
2	191	59.90±10.91a		30.47±12.91a	
3 이상	29	55.21±12.60b		19.76±14.13b	
자녀연령(개월)					
6이하	50	60.54±7.75a	22.389 (0.001)	32.46±11.03a	18.050 (0.001)
7~12	77	59.83±10.65a		33.61±10.79a	
13~24	132	61.33±10.10a		30.38±12.68a	
25~36	143	52.29±10.17b		22.23±14.38b	
수유방법					
모유	132	60.64±11.69a	10.670 (0.001)	30.12±14.38a	5.441 (0.005)
혼합수유	96	54.16±10.25b		24.48±14.09b	
분유	174	57.49±9.64a		29.16±12.30a	
보육시설 이용여부					
예	323	58.13±10.94	1.528 (0.127)	28.24±13.75	-0.348 (0.728)
아니오	79	56.08±9.81		28.84±13.00	
남편 양육 도움					
도와주는 편	96	50.70±11.58a	33.042 (0.001)	21.05±14.69a	24.181 (0.001)
보통	259	59.48±9.59b		29.78±12.37b	
도와주지 않는 편	47	62.43±8.44b		35.45±11.49c	
남편 외 가족 양육 도움					
도와주는 편	80	53.46±11.97a	8.491 (0.001)	22.50±14.80a	9.686 (0.001)
보통	253	58.54±10.43b		29.76±13.12b	
도와주지 않는 편	69	59.70±9.13b		30.00±12.13b	

<sup>a,b,c</sup> The same letter mean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01$ ). 남편 외 가족 양육 도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도와주는 편'인 군은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53.46점, '보통' 58.54점,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편'인 군은 59.70점으로, 남편 외 가족으로부터 양육 도움이 낮은 군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01$ ).

자녀의 수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1명'인 군과 '2명'인 군의 우울증은 각각 27.52점과 30.47점으로, '3명 이상'인 군의 19.76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자녀연령이 '25~36개월'인 군의 우울증은 평균 22.23점으로, '6개월 이하' 32.46점, '7~12개월 이하' 33.61점, 그리고 '13~24개월 이하' 30.38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p < 0.001$ ). 수유방법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혼합수유'인 군은 우울증이 평균 24.48점으로, '모유' 30.12점과 '분유' 29.16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5$ ). 남편 양육 도움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도와주는 편'인 군은 우울증이 평균 21.05점, '보통' 29.78점,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편'인 군은 35.45점으로, 남편으로부터 양육 도움이 낮은 군일수록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01$ ). 남편 외 가족 양육 도움에 따른 우울증의 경우 '도와주는 편'인 군은 우울증이 평균 22.50점, '보통' 29.76점,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편'인 군은 30.00점으로, 남편 외 가족으로부터 양육 도움이 낮은 군일수록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01$ ).

표 4.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간 상관관계

특성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외모관심도	1			
외모관리행동	0.552 (<0.001)	1		
양육 스트레스	-0.113 (0.023)	-0.290 (<0.001)	1	
우울증	-0.200 (<0.001)	-0.358 (<0.001)	0.680 (<0.001)	1

### 3.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간 상관관계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과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성을 보여, 외모관심도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0.113$ ,  $p=0.023$ ;  $r=-0.200$ ,  $p<0.001$ ). 또한 외모관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각각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0.290$ ,  $p<0.001$ ;  $r=-0.358$ ,  $p<0.001$ ).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r=0.680$ ,  $p<0.001$ ).

### 4.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15.380$ ,  $p<0.001$ ), 고려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의 변동을 46.3%정도 설명하였다(Adjusted-R<sup>2</sup>=0.463). 또한 분산팽창요인(VIF)은 최대 4.656, 공차한계(TOL)는 최소 0.215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양육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은 외모관리행동

( $B=-0.175$ ,  $p=0.002$ ), 연령(20대 vs 30대:  $B=6.902$ ,  $p<0.001$ ; 40대 이상:  $B=6.412$ ,  $p=0.003$ ), 학력(고졸 vs 대학원졸:  $B=4.612$ ,  $p=0.007$ ), 결혼생활 만족도(만족 vs 보통:  $B=6.104$ ,  $p<0.001$ ; 불만족:  $B=9.163$ ,  $p<0.001$ ), 자녀연령(25~36개월 vs 13~24개월 이하:  $B=4.746$ ,  $p<0.001$ ; 7~12개월 이하:  $B=3.757$ ,  $p=0.002$ ; 6개월 이하:  $B=6.223$ ,  $p<0.001$ ), 수유방법(혼합수유 vs 모유:  $B=2.484$ ,  $p=0.037$ ; 분유:  $B=2.277$ ,  $p=0.032$ ), 보육시설 이용 여부(예 vs 아니오:  $B=-2.500$ ,  $p=0.026$ ), 그리고 남편 양육 도움(도와주는 편 vs 보통:  $B=5.030$ ,  $p<0.001$ ; 도와주지 않는 편:  $B=6.487$ ,  $p<0.001$ ) 등으로 나타났다.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양육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은 외모관리행동( $B=-0.175$ ,  $p=0.002$ ), 연령(20대 vs 30대:  $B=6.902$ ,  $p<0.001$ ; 40대 이상:  $B=6.412$ ,  $p=0.003$ ), 학력(고졸 vs 대학원졸:  $B=4.612$ ,  $p=0.007$ ), 결혼생활 만족도(만족 vs 보통:  $B=6.104$ ,  $p<0.001$ ; 불만족:  $B=9.163$ ,  $p<0.001$ ), 자녀연령(25~36개월 vs 13~24개월 이하:  $B=4.746$ ,  $p<0.001$ ; 7~12개월 이하:  $B=3.757$ ,  $p=0.002$ ; 6개월 이하:  $B=6.223$ ,  $p<0.001$ ), 수유방법(혼합수유 vs 모유:  $B=2.484$ ,  $p=0.037$ ; 분유:  $B=2.277$ ,  $p=0.032$ ), 보육시설 이용 여부(예 vs 아니오:  $B=-2.500$ ,  $p=0.026$ ), 그리고 남편 양육 도움(도와주는 편 vs 보통:  $B=5.030$ ,  $p<0.001$ ; 도와주지 않는 편:  $B=6.487$ ,  $p<0.001$ )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독립변수	범주	B	$\beta$	t	P-값
외모관심도		0.027	0.028	0.581	0.562
외모관리행동		-0.175	-0.157	-3.177	0.002
연령	20대*				
	30대	6.902	0.279	3.566	<0.001
	40대 이상	6.412	0.237	3.009	0.003
학력	고졸*				
	대졸	1.704	0.069	1.313	0.190
	대학원졸	4.612	0.142	2.698	0.007
종교유무	없음*				
	있음	1.411	0.066	1.633	0.103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2.130	0.099	1.936	0.054
	500만원 이상	0.584	0.024	0.456	0.649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1.409	0.064	1.449	0.148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				
	보통	6.104	0.270	5.703	<0.001
	불만족	9.163	0.221	4.849	<0.001
자녀 수 (명)	3 ≤ *				
	2	0.799	0.037	0.474	0.636
	1	-1.707	-0.079	-1.002	0.317
자녀연령 (개월)	25~36*				
	13~24 ≥	4.746	0.208	4.660	<0.001
	7~12 ≥	3.757	0.138	3.050	0.002
	6 ≥	6.223	0.191	4.300	<0.001
수유방법	혼합수유*				
	모유	2.484	0.109	2.094	0.037
	분유	2.277	0.105	2.154	0.032
보육시설 이용여부	예*				
	아니오	-2.500	-0.093	-2.242	0.026
남편 양육도움	도와주는 편*				
	보통	5.030	0.224	4.840	<0.001
	도와주지 않는 편	6.487	0.194	3.787	<0.001
남편 외 가족 양육도움	도와주는 편*				
	보통	0.918	0.041	0.824	0.410
	도와주지 않는 편	0.117	0.004	0.079	0.937
F-값			15.380		
P-값			<0.001		
Adjusted R2			0.463		

\* 기준범주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의 연령이 높은 경우, 대학원 졸업인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연

령이 낮은 경우, 혼합수유가 아닌 모유 또는 분유인 경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 도움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독립변수	범주	B	$\beta$	t	P-값
외모관심도		0.027	0.028	0.581	0.562
외모관리행동		-0.175	-0.157	-3.177	0.002
연령	20대*				
	30대	6.902	0.279	3.566	<0.001
	40대 이상	6.412	0.237	3.009	0.003
학력	고졸*				
	대졸	1.704	0.069	1.313	0.190
종교유무	대학원졸	4.612	0.142	2.698	0.007
	없음*				
월 평균 가구소득	있음	1.411	0.066	1.633	0.103
	300만원 미만*				
경제활동상태	300~500만원 미만	2.130	0.099	1.936	0.054
	500만원 이상	0.584	0.024	0.456	0.649
	경제활동*				
결혼생활 만족도	비경제활동*	1.409	0.064	1.449	0.148
	만족*				
자녀 수 (명)	보통	6.104	0.270	5.703	<0.001
	불만족	9.163	0.221	4.849	<0.001
	3≤*				
자녀연령 (개월)	2	0.799	0.037	0.474	0.636
	1	-1.707	-0.079	-1.002	0.317
	25~36*				
	13~24≥	4.746	0.208	4.660	<0.001
수유방법	7~12≥	3.757	0.138	3.050	0.002
	6≥	6.223	0.191	4.300	<0.001
	혼합수유*				
	모유	2.484	0.109	2.094	0.037
보육시설 이용여부	분유	2.277	0.105	2.154	0.032
	예*				
남편 양육도움	아니오	-2.500	-0.093	-2.242	0.026
	도와주는 편*				
남편 외 가족 양육도움	보통	5.030	0.224	4.840	<0.001
	도와주지 않는 편	6.487	0.194	3.787	<0.001
	도와주는 편*				
남편 외 가족 양육도움	보통	0.918	0.041	0.824	0.410
	도와주지 않는 편	0.117	0.004	0.079	0.937
	F-값				15.380
P-값				<0.001	
Adjusted R <sup>2</sup>				0.463	

\* 기준범주

### 5.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14.607, p<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우울증의

변동을 44.9%정도 설명하였다(Adjusted-R<sup>2</sup>=0.449). 또한 분산팽창요인(VIF)은 최대 4.656, 공차한계(TOL)는 최소 0.215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은 외모관리행동(B=-0.262, p<0.001), 종교유무(없음 vs 있음: B=3.115, p=0.005), 결혼생활 만

족도(만족 vs 보통:  $B=9.569$ ,  $p<0.001$ ; 불만족:  $B=17.350$ ,  $p<0.001$ ), 자녀 수(3명 이상 vs 2명:  $B=6.220$ ,  $p=0.004$ ), 자녀연령(25~36개월 vs 7~12개월 이하:  $B=4.378$ ,  $p=0.006$ ; 6개월 이하:  $B=5.833$ ,  $p=0.002$ ), 수유방법(혼합수유 vs 분유:  $B=3.509$ ,  $p=0.010$ ), 그리고 남편 양육도움(도와주는 편 vs 보통:  $B=3.511$ ,  $p=0.009$ ; 도와주지 않는 편:  $B=6.049$ ,  $p=0.006$ )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종교가 없는 군에 비해 종교가 있는 군,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군에 비해 2명인 군, 자녀연령이 낮은 경우, 혼합수유인 군에 비해 분유인 군의 경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도움이 낮을수록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6. 실험군의 미용 프로그램 전후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차이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미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시행 후 양육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45.94점으로 나타나 시행 전 양육 스트레스 평균 53.06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Z=-3.520$ ,  $p<0.001$ ).

또한 미용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의 우울증이 평균 14.18점으로 나타나 시행 전 평균 19.8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Z=-3.109$ ,  $p=0.002$ ). 즉 미용 프로그램이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고찰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할수록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용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미용 프로그램 참여 후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프로그램이 중년여성, 정신질환자, 그리고 신체장애인 등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19][20]. 또한 헤어[21], 피부[22], 그리고 네일[23] 등의 관리가 여성의 우울,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외모관리행동은 적극적일수록 건강생활습관이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으며[24], 배우자의 외모관리행동은 결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기혼여성은 출산 후 급격한 체형 변화를 겪음으로써 심리적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매우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26]. 그러나 외모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개인적 자유시간과 사회활동의 제약 등으로 심리적 행복감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27]. 특히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이중부담으로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28].

표 7. 실험군의 프로그램 전후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차이

구분	M±SD	Z.	p
양육 스트레스			
프로그램 전	53.06±9.14		
프로그램 후	45.94±5.89	-3.520 <sup>a</sup>	<0.001
우울증			
프로그램 전	19.82±12.18		
프로그램 후	14.18±8.11	-3.109 <sup>a</sup>	0.002

<sup>a</sup>양의 순위를 기준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 양육 관련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고려된 통제변수들과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의 주요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녀연령, 결혼생활 만족도,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 도움 정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한다는 서성중 [29]의 연구와 결혼생활 만족도와 남편으로부터 양육 도움이 높을수록 우울증은 감소한다는 정유림 외[30]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 된다.

영유아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끊임없는 주의와 적절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인지하여 피로감은 더욱 가중되고,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31]. 따라서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와 도움은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며[32], 여성이 양육자로서의 역할 이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가족과 사회의 지원이 다른 집단보다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3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모관리행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심리적·경제적 지원과 시간일 것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이해와 배려심이 필요하며,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34].

본 연구는 단면연구와 미용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고려된 원시실험연구의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로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코호트 연구 또는 대조군이 포함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였다는 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미용관리행동과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점, 그리고 미용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여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 V.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신 건강증진과 자존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미용관리 행동을 제안하며, 특히 일반적 특성과 자녀 양육 관련 특성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 우울의 수준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보건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큰 미용 프로그램을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및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정원식, *인간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2]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8년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3] R. Higgins,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some general points*. In Varma, V. (ed), *The Management of children with Emotional Behavioural Difficulties*, London Routledge, 1990.
- [4] 강경선, "우울증과 예술적 창조성," *인문과학연구*, 제 38집, pp.439-462, 2013.
- [5] 김명리, *우울 증년여성을 위한 미용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6] 이명심, *화장행동이 노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7] 김보경,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우울, 자아 존중감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8] 김정임, *외모 가꾸기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9] 허순득, *미용요법이 증년여성의 우울증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10] 원정재, *미용복지 프로그램에 따른 노인의 심리 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1] 허정록, 정은영, “미용요법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한미용과학회지*, 제6권, 제1호, pp.73-78, 2010.
- [12] 이해정, *치매노인에 대한 미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인지, 정서 및 생리적 기능 효과검증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3] 지정훈, “미용치료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기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제18권, 제2호, pp.383-390, 2012.
- [14] 전홍수,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 청각장애 여성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15] 임정미, *노년기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미용요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6] 공영희, *인지행동 상담과 두피마사지를 활용한 미용치료 프로그램이 직장여성의 직장 및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7] L. S. Radloff,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 [18] 전겸구, 이민규, “한국판 CES-D 개발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65-76, 1992.
- [19] 지정훈, “미용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6권, 제1호, pp.323-334, 2010.
- [20] 정순용, “여성신체장애인의 외모관리행동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제8권, 제3호, pp.165-177, 2014.
- [21] 김경란,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완화를 위한 헤어살롱 뷰티큐어 매뉴얼 연구*, 영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2] 신영훈, *중년여성을 위한 피부관리기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23] 신혜숙, *중년 여성의 네일미용관리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24] 김효신, *바다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이 건강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5] 채유진, *배우자의 외모관리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6] 차주현, *30대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외모관심도 및 미용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7] 윤경숙,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차의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28] 정유림, 정성화, 유양근, 한삼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11권, 제2호, pp.93-103, 2017.
- [29] 서성종,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30] 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기혼 여성의 남편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결혼행복감을 매개로,”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8권, 제12호, pp.263-271, 2018.
- [31] 남궁기순,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2] 안선희,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 및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9권, 제4호, pp.311-327, 2005.
- [33] 호운정, 오영아, 이명선, “보육형태와 가사노동분담이 기혼여성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제41권, 제2호, pp.77-87, 2015.
- [34] 이영주, *우울감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부상담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저 자 소 개

공 미 진(Mi-Jin Kong)

정희원



■ 2016년 1월 ~ 2020년 6월 : 대구  
한의대 대학원 보건학과

<관심분야> : 보건미용

유 왕 근(Wang-Keun Yoo)

정회원



- 1990년 9월 ~ 현재 : 대구한의대  
학교 보건학부 교수

〈관심분야〉 : 보건관리, 보건정책 등

한 삼 성(Sam-Sung Han)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  
학교 보건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정신보건, 보건정책 등

강 매 희(Mae-Hee Kang)

정회원



- 2018년 2월 ~ 현재 : 대구한의대  
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관심분야〉 : 보건정신건강, 간호관리